

임실군 고소득 작목 육성 만전

원예·과수·시설하우스 등 45억원 집중 투자... 살맛나는 농촌 기대

임실군이 돈버는 희망농업과 살고 싶은 임실을 만들어 가기 위해 고소득 작목 육성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군은 올해 45억원을 투자해 원예분야 및 과수분야를 비롯해 시설 하우스의 농업인 보조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분야별 지원규모는 지역특색에 맞는 원예작물 생산지원 사업에 10억원과 임실고추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고추 품질 차별화사업에 7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임실군이 돈버는 희망농업과 살고 싶은 임실을 만들어 가기 위해 고소득 작목 육성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원예 등에 19억원을 투자해 농가들이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군은 이같은 지원사업에 힘입어 원예특작 분야 지원사업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실질적인 농업인 소득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심민 군수는 "원예와 과수, 시설하우스는 임실군이 주력하는 고소득 작목 지원사업으로서 올해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는 데 관

련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농촌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농업인들이 살맛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군은 한편 유통과 가공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농산물 제값받기 운동에 앞장서는 한편 가격 안정성을 확보, 실질적인 농가소득 향상을 주도해 나가는 농업정책에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취약계층 아이들 맞춤형 복지제공

순창군 2억1800만원 집행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순창군은 올해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맞춤형 복지 제공을 통해 건강한 신체는 물론 마음까지 치유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한다.

군 드림스타트팀은 이를 위해 2억 18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며 건강과 보육 및 복지를 통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지원대상자는 131가구에 261명이다. 특히 이들에게는 건강검진과 영양교육, 자녀발달 양육 등 31개 기본적 통합 서비스는 물론 드림스타트대상 아동 부모교육 및 자조모임 등 보호자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외부 복지재단과 연계하는 사업도 진행돼 효과를 높인다.

우선 통합서비스는 보건분야, 보육분야, 복지분야 등 3개 분야로 나눠 사업이 진행된다.

보건분야는 아이들의 건강한 신체발

/순창=이양원 기자

달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영양교육, 건강검진, 치과치료, 안전교육 등 11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보육분야는 아이들이 기본적 학습능력을 길러주는 분야다.

언어치료, 인지학습치료, 공부방운영 등 10개 프로그램이 대상이다. 복지분야는 아이들이 정서적 안정을 통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마음 치유까지 돕는 프로그램이다. 독서지도, 미술치료, 가족상담 등 10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군은 이외에도 드림스타트아이들은 물론 부모들이 아이들을 잘 키우고 적응시킬 수 있도록 부모교육과 자조모임도 돕는다.

군 관계자는 "드림스타트지원사업은 지역에서 지원이 꼭 필요한 아이들을 돕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을 적극 발굴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매아리

남원시 희귀질환 의료비 돕는다

남원시보건소는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의료비가 부담되고 있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환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시민건강과 복지수준에 이바지 하고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환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지원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희귀질환 133종에 해당하고, 산정특례에 등록 돼 있는 자로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해 영장 신청하면 된다. 희귀질환자로 등록되면 요양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 받게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남성 전립선암 검사 지원

순창군 보건의료원은 29일부터 선착순 500명에 한하여 올해 전립선암 특이항원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만 50세 이상 75세 이하 순창군민으로 전립선 증상 점수표 문진 후 혈액을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 위탁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를 원하는 군민들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군은 지속적 증가추세에 있는 남성 10대 안 중 5위인 전립선암이 뚜렷한 자각 증상이 없어 50세 이상이면 전립선암 검사를 매년 받아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판단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한해농사 결정짓는 '겨울철 가축관리'

실내온도·급수·감염병·화재 등 관리 주의해야

겨울철 가축 및 축사관리는 한해농사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사육농가에서는 동절기 가축관리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신생송아지의 경우 초유공급이 부족하고 기온이 떨어지면 실사 및 호흡기질병 등 발생이 우려되므로 송아지 우리에 다른 깔짚을 깔아주는 등 보온에 힘쓰고, 외부 찬 공기가 직접 송아지 몸에 닿지 않도록 방풍시설을 점검해야 한다.

혹한기에 급수기가 동파되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하고, 가온급수기인 경우 누전여부를 확인하여 누전에 의한 쇼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 브루셀라병과 결핵병 및 광견병 예방을 위해서는 야생동물을 적극 차단하고 정기적으로 가성소나 및 페놀 등 소독제를 사용하여 축사인팍을 소독하고 혈청검사를 받아 감염된 소가 발견되면 즉시 도태시킨다.

돼지의 경우 돈사 출입문에 보온덮개를 설치하여 셋바람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되 돈사가 밀폐되면 결로현상이 발생하여 내부습도가 올라가므로 단열시설과 전기시

설을 수시 점검 및 보완하며 돈사 내 가스발생량과 온도를 고려하여 환기팬 회전속도를 조정한다.

분만사 실내온도는 20~22℃ 범위로 유지하고, 실내온도 편차를 최대한 줄여주어야 한다. 자돈 주변의 온도는 출생직후 30℃, 1주일 후 27.5℃, 이유시에는 22~25℃ 정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온도 관리에 주의한다.

겨울철 기온이 떨어지면 돼지는 체온유지를 위해 소모하는 열량이 증가하게 되므로 사료량을 평소보다 10~20% 정도 증량 급여하여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날씨가 추워지면서 음수공급이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자돈사 및 육성 비육돈사에 정상적으로 물이 공급되는지 수시로 점검한다.

용량이 작은 열풍기를 이용해 넓은 면적을 가온할 경우 열풍기 과열에 따른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화재예방에도 주의하도록 한다.

가축사육농가에서는 동절기 기온 변화 및 가축 건강에 세심한 관심을 쏟음으로써 경제적 손실 및 질병발생 및 확산을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남원=유영철 기자

"맛있고 건강한 수돗물 안심하고 드세요"

남원시, 상수도 공사·시민위주 시책 추진... 최고수준 수 생산·공급 최선

남원시는 2018년 한 해 시민에게 맛있고 건강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중점 추진방향으로 '최고수준의 수돗물 생산·공급'과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을 설정하고 상수도 각 분야에서 수도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최고수준의 수돗물 생산·공급을 위해 각종 상수도 공사 및 유지관리를 시행한다.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103개소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로 유지보수 공사와 긴급복구 공사를 시행한다. 또한 인월 재래마을 외 15개 마을에 대해서는 지방상수도 마을권 급수공사를 실시하여 가정 내 수도 계량기를 설치, 해당 지역 시민들이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농어촌 지역에 생활용수를 공

급하는 배수지계통 사업을 2018년도 36억여원을 투입하여 실시한다. 대강 배수지 계통 사업을 통하여 도곡, 곡촌 마을 등 총 6개 마을에 급수를 할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덕과배수지 계통 사업으로 상수관로 5.4km를 부설, 연내 보령 중면마을 등 3개 마을에 급수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여름철 탁수 발생을 방지하고 깨끗한 수돗물이 가정까지 공급되도록 동지역의 노후 상수관로를 교체한다. 총사업비 34억을 투입예정인 대강지역의 노후 상수관로 3개지구 11.0km를 교체할 예정이다. 또한 누수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을 선정, 해당지역의 노후 상수관로를 교체한다. 2018 누수대발 지역 상수관로 개선공사가 계획되어 있는 신정동 셋터마을, 수지 남창·용

강마을, 이백 폐문마을 등에 대해 해당지역의 누수상수관로 8.0km를 교체하여 누수되는 물을 막고 유수율 향상을 도모한다.

다음으로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2월에는 '수돗물 품질결과 보고서'를 각 수용가에 배부한다.

2017년 한 해 동안 실시한 수돗물 수질검사 자료를 수록하여 남원시 수돗물 품질의 우수성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수돗물 생산 및 공급과정 안내, 수돗물 관련 정보를 담아 남원시 수돗물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시민들이 가정에서 직접 받아 볼 수 있도록 한다.

남원시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2018년 한 해에도 각 가정마다 맑고 깨끗한 고품질의 수돗물이 공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